

## 초등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I\*

김 수 정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곽 금 주<sup>1)</sup>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 초기 학교적응과 관련되는 변인을 탐색하고 변인 간의 직·간접적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만 7세 된 아동의 어머니와 각 아동의 학교 담임교사 118쌍들이다. 가족응집력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어머니 보고로 측정했으며, 학교적응은 아동의 각 담임교사의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어머니보고 및 교사보고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상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는데, 특히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효능감은 사회적 유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었고, 훈육능력효능감은 학교적응 및 그 하위영역인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그리고 또래적응을 예측해 주었다. 경로분석 결과, 가족응집력은 양육효능감에 그리고 양육효능감은 학교적응에 직접적 효과를 보였다. 가족응집력이 학교적응과는 직접적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관련을 보였다. 또한 응집력은 사회적 유능성에도 직접적 효과는 보이지 않았으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관련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학령 초기 학교적응에 직접적 효과를 보일뿐 아니라 응집력이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주요어 : 초등일학년 학교적응,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가족응집력

\* 본 논문은 2008년도 연구재단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8-005-J01302).

1)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kjkwak@snu.ac.kr)

## I. 서 론

초등학교는 가정으로부터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한 사회화 훈련이 시작되는 시기로 청소년기나 성인기 삶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토대가 된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이 시기는 독립적 대처와 자기조절의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전이의 시기로서 타인에 의존하여 정서 조절을 하는 이전 시기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내적인 전략에 의존하여 정서를 조절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Losoya, Eisenberg, & Fabes, 1998, 김수정, 박금주, 2010에서 재인용). 학령초기 대부분의 아동들은 이런 전환의 시기를 자연스런 변화로 맞이하기도 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물리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며, 또래나 교사 등 가족 이외의 사람들로 사회생활의 영역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적응상의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Stipek, Feiler, Byler, Ryan, Milburn, & Salmon, 1998). 특히 학령 초기의 적응은 전반적인 학령기 적응을 예측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가 될 수 있다(Brody, Murry, Kim, & Brown, 2002; Ladd & Troop-Gordon, 2003).

아동에게 있어 학교는 가정에서 사회로 첫 발을 내밀게 되는 새로운 장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 차유림(2001)에 의하면 학교적응이란 아동이 학교라는 환경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와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 하는 적극

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다. Ladd, Kochenderfer, 그리고 Coleman(1996)에 의하면 학교적응은 아동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학교생활의 안락함을 느끼고, 전반적인 학교생활 영역에서 성공을 이루는 정도로서 이러한 각 영역의 성공은 이후 교육적 진보의 중요한 전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적응의 경험들은 아동이 다양한 환경과의 조화로운 상호작용과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교사나 다른 또래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규칙에 순응하면서 독립된 한 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해준다(류운석, 1996, 김수정, 박금주, 2010에서 재인용). 즉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아동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의 학교적응은 학교에 대한 만족 뿐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사회·정서 발달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학교생활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학교는 아동에게 단체생활의 규칙, 성취감, 협동심을 익히게 하며 바람직한 자아개념, 사회관, 가치관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발달시켜나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Elliott, 1972, 김수정, 박금주, 2010에서 재인용). 만약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아동들은 인간관계 형성에 꼭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거나 공격성, 과잉행동, 우울,

위축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최진희 2000). 특히 이러한 문제행동들은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여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며, 또래 괴롭힘과 또래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아동들은 이후 삶속에서 지속적인 심리적인 적응의 어려움, 학교 중도 탈락, 그리고 비행등의 위험에 직면하기도 한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7). 따라서 초등일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으며, 학령초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적응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을 아동변인, 부모변인 그리고 환경변인으로 구분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첫 번째 연구의 방향은 3개변인 각각과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단편적으로 분석하였다. 가령, 아동변인과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남아가 여아보다 학교생활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만족하며, 높은 적응을 보였으나(이수경, 2004), 또 다른 연구(박소혜, 1995)에서는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은 낮은 아동에 비해 학교적응 수준이 높았으며(고근중, 2006), 학년이 증가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했다(신진희, 2005).

부모변인과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김승봉, 2005; 노미숙, 2003; 김희수, 2002)에 의하면, 어머니 취업여부와 학교적응 간 어떤 차이도 없었고, 어머니의 연령이 어릴수록 학교생활에 더 적응했으며, 부모교육

수준도 학교적응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환경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변인인 의미 있는 대상들, 가령 어머니나 또래 및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학교적응과 높은 관련을 보이기도 했다(차유림, 2001).

두 번째 연구의 방향은 아동과 관련된 변인들, 가령, 부모변인, 가족 변인, 아동 변인 및 아동의 학교환경변인들 중, 2개 이상의 변인들과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가족 구조,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양육태도,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 등과 학교적응 간 관계를 살펴보았거나(박수정, 1998; 서명성, 1998), 아동의 학교환경과 학교적응 간 관계를 살펴보기도 했다(유선이, 1999).

지금까지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학교적응과 관련을 보이는 변인들을 단편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대부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초등일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관련변인을 알아보는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학령 초기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을 총체적으로 알아보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최근에 김수정과 박금주(2010)는 초등일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령초기 학교적응과 연관된 변인을 부모변인인 양육태도와 아동변인인 사회적 유능성과 문제행동을 가지고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단기·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김수정과 박금주(20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6세경, 부모 양육태도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6세경 아동의 문제행동은 이후 7세경 아동의 학교적응에 가장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아동의 학

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일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게 관련되어짐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성장과정에 있어 가정은 최초의 교육의 장이며 가정에서의 경험은 이후 사회·정서적 발달에서의 차이를 가져온다(고경은, 2002). 일반적으로 학교환경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아동의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안영림, 1992), 가족 구성원 간에 애정과 신뢰에 기초하고 있는 개방적인 가정의 아동일수록 학교에 더욱 잘 적응한다(김지현, 1996). 즉, 가족이 어떻게 협력하고 정서적으로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에 따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간 상호의존성과 정서적 유대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인 가족응집력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과 관련될 수 있는 환경변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응집력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 또는 가족이 서로 결속되는 정도로 정의된다(Farrell & Barnes, 1993; Olson, 2000). 박수정(1998)과 서명성(1998)의 연구에서도 살펴본바와 같이, 가족응집력은 아동의 행동 문제등과 같은 적응 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liewer & Kung, 1998; Matheme & Thomas, 2001). Lucia 와 Breslau(2006)의 연구에 의하면 6세에 측정된 가족응집력이 아동의 내재화와 주의집중 문제와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는데, 이런 관계는 6세부터 11세까지 안정되었다. 즉 더 높은 응집력을 가진 가족의 아동은 더 적은 내재화 문제와 주의집중 문제를 가졌다. 또한 Gorman-Smith, Tolan, Zelli와

Huesman(1996)의 연구에서도 가족 간 응집력이 낮고 관여가 적을수록 아동의 불안, 과잉행동, 회피행동과 같은 부 적응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런 결과들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문제와 관련하여 가족응집력이 가족의 사회적 환경의 주요 영역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가족 간 결속력인 응집력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변인으로 생각된다.

Alison, Shirley와 Mavis(1996)는 가족의 결속력이 약화되면 개인의 성격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Kotchick와 그의 동료들(1997)에 의하면 가족생활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 가족원의 건강문제 등으로 인한 일상의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특히 양육효능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Levy-Shiff, Dimitrovsky, Shulman, & Har-Evan, 1998). 반면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Teti & Gelfand, 1991).

이런 결과들을 통해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 형성이나 결속력은 가족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심리적 안정감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가족응집력은 가족구성원 간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각각이 가지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해 줄 수 있으므로, 부모의 양육효능감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양육효능감은 Bandura(1997)의 자아효능감을 양육의 차원에 적용시킨 것으로써,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역할 수행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 즉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믿음으로 정의된다(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이러한 양육효능감은 부모 양육능력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 발달에 기여한다(Coleman & Karraker, 1997).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들은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육행동을 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Coleman & Karraker, 1997). 따라서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들은 그러하지 못한 또래들보다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적응을 더 원만하게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학교적응 뿐 아니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아동이 처한 환경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부터 생성된다. 즉,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사회적 유능성은 가족응집력과 같은 사회적 환경변인과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같은 부모변인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Alison, Shirley, & Mavis, 1996; Coleman & Karraker, 1997).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적 행동의 포괄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에 적절한 행동을 발달시켜 적응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즉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한 삶의 기술로

설명될 수 있다(Haggerty, Sherrod, Garmezy, & Rutter, 1994).

Raver와 Zigler(1997)에 의하면 사회적 유능성이란 아동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아동이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의 네트워크 내에서 잘 적응하는 능력이다. Katz와 McClellan(1992)은 만 6세경까지 아동이 최소한의 사회성을 발달시키지 못한다면 이후 사회적 관계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갖게 됨을 강조했다. Brody 등(2002)도 만약 아동이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할 경우, 불행감, 절망감, 불평, 자포자기, 소극적, 그리고 부정적 감정 등의 내재화 문제와 비행, 공격성, 파괴적 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다양한 환경 내에서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 간 관련성에 대한 경험적 지지를 제공한 연구들(Dalton, Elias, & Wandersman, 2007; Zins, Weissberg, R. P., Wang, & Walberg, 2004)이 있다. 가령, 아동들이 이런 사회적 기술인 사회적 능력을 학습하면 정서적 반응을 다루도록 그리고 공격성을 통제하도록 준비되어진다. 또한 사회적 유능성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끌어내고 해로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도덕적 기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Caprara, Barbaranelli, Pastorelli Bandura, & Zimbardo, 2000).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학령 초기의 학교적응을 예측해주는 아동 변인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학령 초기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가족응집력, 양육효능감, 사회적 유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인 가족응집력은 가족 성원들의 정서적 안전감을 발달시키게 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Lucia, & Breslau, 2006). 따라서 가족의 응집력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변인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사회적·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므로(Coleman & Karraker, 1997),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변인으로, 그리고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아동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의 네트워크 내에서 잘 적응하는 능력으로써(Raver & Zigler, 1997)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동변인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학령 초기의 학교적응은 전반적인 학령기 적응을 예측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 삶의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Brody, et al., 2002; Ladd & Troop-Gordon, 2003), 초기 학교적

응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학령 중기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학령 초기 아동의 학교적응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학령초기 아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발달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학령초기 아동에게 질문지를 직접 실시하여 변인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일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변인을 어머니와 아동의 담임교사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즉 사회적 환경변인인 가족응집력과 부모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그리고 아동변인인 사회적 유능성을 가지고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령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주로 어머니 중심 보고를 통해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각 아동의 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변인들을 측정하여 좀 더 다각적으로 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이론적 토대에 근거하여 그림 1의 모형을 제시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 간 관련성을 살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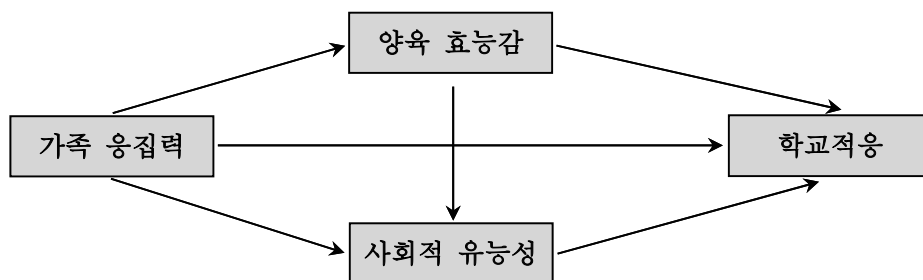


그림 1. 초등일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인과모형

불 것이다. 첫째로 가족응집력,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로 가족응집력, 양육효능감, 사회적 유능성은 초등일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로 가족응집력, 양육효능감, 사회적 유능성이 학교적응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며, 한국연구재단의 2005년 중점 연구과제인 [빈곤이 취학 전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들 중 일부이다. 2009년도가 되었을 때 만 7세가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 180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와 아동 각각의 담임선생님을 통해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4개의 변인을 어머니와 아동의 담임선생님을 통해 측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과정에 참여한 대상들은 118명의 어머니와 담임교사이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 2. 측정도구

#### 어머니용 측정도구

**가족응집력:** Olson, Portner, 그리고 Lavee (1985)가 개발한 가족 적응성 및 응집성 척도 (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FACES-III) 중, 응집성을 측정하는 문항만

표 1. 아동, 부모의 일반적 특징

| 변인  |              | 빈도(%)          |
|-----|--------------|----------------|
| 아동  | 성별           |                |
|     | 남아           | 60명(50.8%)     |
|     | 여아           | 58명(49.2%)     |
|     | 평균 연령        |                |
|     | 남아           | 80.9개월(sd=5.3) |
|     | 여아           | 79.7개월(sd=3.7) |
| 부모  | 어머니 평균 연령    | 37.8세(sd=3.8)  |
|     | 아버지 평균 연령    | 40.3세(sd=3.7)  |
|     | 어머니 학력       |                |
|     | 중졸           | 4명(3.8%)       |
|     | 고졸           | 31명(29.8%)     |
|     | 전문대졸         | 17명(16.3%)     |
|     | 대졸           | 45명(43.3%)     |
|     | 대졸이상         | 7명(6.7%)       |
|     | 아버지 학력       |                |
|     | 중졸           | 6명(5.7%)       |
|     | 고졸           | 33명(31.1%)     |
|     | 전문대졸         | 15명(14.2%)     |
|     | 대졸           | 38명(35.8%)     |
|     | 대졸이상         | 14명(13.2%)     |
| 월수입 | 100만원미만      | 6명(5.2%)       |
|     | 100-200만원 미만 | 33명(28.7%)     |
|     | 200-300만원 미만 | 26명(22.6%)     |
|     | 300-400만원 미만 | 22명(19.1%)     |
|     | 400만원 이상     | 28명(24.3%)     |

을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들(가령, ‘서로에게 도움을 청한다, 각자의 친구들을 인정해준다’ 등)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5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뢰도는 .89이다.

**양육효능감:**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7문항(가령,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등)으로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각각의 하위영역으로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 등이다. 이전 연구에서 신뢰도는 .95이며 하위척도들의 신뢰도는 .73-.87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뢰도는 .96이며,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78-.92이며 구체적인 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유능성:** Pease, Clark와 Crase(1979)가 개발한 부모평가척도로 아이오아 사회적 능력 척도(Iowa Social Competency Scales, ISCS) 중 어머니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34개 문항(가령, '처음 보는 아이들과도 잘 어울려 논다' 등)으로 사회적 활동성, 과민성, 안정성, 비협

조성, 협조성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나, 과민성과 비협조성 영역을 역채점하여 각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5개 영역을 모두 합산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신뢰도는 .87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뢰도는 .81이다.

### 교사용 측정도구

**학교적응:** 지성애와 정대현(2006)이 개발한 척도로, 담임교사를 통해 초등일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며, 총 35문항(가령,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등)으로 5점 척도로 평가된다. 입학 후 3-4개월 후 각 담임 교사에게 질문지를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했다.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이다.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8이고 각 하위영역 문항의 신뢰도는 학교생활 적응이 .97, 학업수행적응이 .96, 또래적응이 .96, 교사적응이 .84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97이며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86-.95로, 구체적인 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측정변인별 문항 수와 신뢰도

|             |                       | 측정변인     | 문항 수 | Cronbach's<br>alpha |
|-------------|-----------------------|----------|------|---------------------|
|             |                       | 가족응집력    | 10   | .89                 |
|             |                       | 사회적 유능성  | 36   | .81                 |
| 어<br>머<br>니 | 양<br>육<br>효<br>능<br>감 | 전반적 양육능력 | 11   | .92                 |
|             |                       | 건강한 양육능력 | 7    | .81                 |
|             |                       | 의사소통능력   | 9    | .89                 |
|             |                       | 학습지도능력   | 6    | .83                 |
|             |                       | 훈육능력     | 4    | .78                 |
|             |                       | 전체       | 37   | .96                 |
| 교<br>사      | 학<br>교<br>적<br>응      | 학교생활적응   | 11   | .95                 |
|             |                       | 학업수행적응   | 11   | .94                 |
|             |                       | 또래적응     | 8    | .93                 |
|             |                       | 교사적응     | 5    | .86                 |
|             |                       | 전체       | 35   | .97                 |

###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일학년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들 간 관련성 및 이들 변인이 학교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9년도 아동이 만 7세가 되었을 때, 각 아동의 가정으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측정하는 설문지와 가족의 응집력,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및 어머니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설문지가 발송되었고, 어머니가 직접 작

성 한 후 반송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설문지는 아동이 입학 후 4개월이 지난 다음, 아동의 각 학교 담임교사에게 설문에 대한 설명서와 같이 발송되었다.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 상태를 관찰한 후 담임교사들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 반송하였다. 180명의 연구대상 중, 어머니 설문지를 통해 측정된 3개 변인과 담임선생님 설문지를 통해 측정된 1개변인 모두에 참여한 아동은 총 118명이다. 따라서 최종 분석 대상은 118명이다.

가족의 응집력,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및 학교적응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그림 1의 이론적 인과모형에 따라 첫 번째로 응집력과 양육효능감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응집력, 양육효능감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을 예측변인으로, 학교적응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림1의 인과모형에 따라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경로를 알아보았다. 이들 자료는 SPSS 14.0 프로그램과 AMOS 1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가족응집력,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

가족응집력, 양육효능감, 사회적 유능성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각 변인과 그 하위영역 별 평균값과 편차를 산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아울러 각 변인 측정값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제시하였다. 학교적응과 각 변인들의 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가족응집력은 사회적 유능성( $r=.32$ ), 양육효능감( $r=.39$ )과  $p<.01$  수준에서 유의미했으며, 학교적응의 하위영역 중, 또래적응과만  $p<.05$  수준에서 미비한 상관( $r=.19$ )을 보였다. 사회적 유능성은 양육효능감( $r=.48$ )과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들과도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표 4 참조), 학교적응과는 아무런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양육효능감은 학교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상

표 3.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 (n=118)

| 변인       | 평균     | 편차    | 점수범위   |
|----------|--------|-------|--------|
| 가족응집력    | 35.33  | 5.89  | 15-45  |
| 사회적 유능성  | 123.37 | 12.23 | 84-153 |
| 양육효능감    | 140.93 | 18.44 | 88-183 |
| 전반적 양육능력 | 39.27  | 6.37  | 23-54  |
| 건강한 양육능력 | 27.95  | 3.62  | 16-35  |
| 의사소통능력   | 34.91  | 4.64  | 21-44  |
| 학습지도능력   | 23.10  | 3.65  | 13-30  |
| 훈육능력     | 15.69  | 2.12  | 10-20  |
| 학교적응     | 129.19 | 24.53 | 55-175 |
| 학교생활적응   | 41.62  | 9.28  | 18-55  |
| 학업수행적응   | 40.13  | 8.85  | 13-55  |
| 또래적응     | 28.38  | 6.10  | 12-40  |
| 교사적응     | 19.06  | 3.95  | 11-25  |

표 4. 가족응집력, 양육효능감, 사회적 유능성,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
| 1. 가족응집력   | 1     |       |       |       |       |       |       |       |       |       |       |       |    |
| 2. 사회적 유능성 | .32** | 1     |       |       |       |       |       |       |       |       |       |       |    |
| 3. 양육효능감   | .39** | .48** | 1     |       |       |       |       |       |       |       |       |       |    |
| 4. 전반적양육   | .36** | .44** | .92** | 1     |       |       |       |       |       |       |       |       |    |
| 5. 건강양육    | .37** | .40** | .90** | .75** | 1     |       |       |       |       |       |       |       |    |
| 6. 의사소통    | .35** | .47** | .93** | .77** | .86** | 1     |       |       |       |       |       |       |    |
| 7. 학습지도    | .39** | .45** | .92** | .83** | .78** | .79** | 1     |       |       |       |       |       |    |
| 8. 훈육지도    | .26** | .32** | .79** | .63** | .69** | .73** | .70** | 1     |       |       |       |       |    |
| 9. 학교적응    | .14   | .16   | .29** | .29** | .20*  | .21*  | .31** | .34** | 1     |       |       |       |    |
| 10. 학교생활적응 | .15   | .15   | .29** | .28** | .21*  | .23*  | .31** | .34** | .89** | 1     |       |       |    |
| 11. 학업수행적응 | .09   | .13   | .28** | .28** | .200* | .20*  | .31** | .33** | .91** | .71** | 1     |       |    |
| 12. 또래적응   | .19*  | .15   | .22*  | .23*  | .15   | .17   | .22*  | .26** | .89** | .73** | .74** | 1     |    |
| 13. 교사적응   | .01   | .16   | .13   | .15   | .09   | .05   | .14   | .15   | .71** | .45** | .64** | .60** | 1  |

\*  $p < .05$ , \*\*  $p < .01$ ,

관을 보였으며( $r=.29$ ,  $p<.01$ ), 학교적응의 하위 영역 중 학교생활적응( $r=.29$ )과 학업수행적응( $r=.28$ )과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했으나, 또래적응과( $r=.22$ )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학교적응의 하위영역 중 교사적응 영역은 어떤 변인과의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 2. 가족응집력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가족응집력 및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어떤 영향력을 보이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응집력과 양육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유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

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예측변인은 양육효능감으로, 사회적 유능성의 전체 분산 중에 22.6%의 설명력을 보였다(표 5 참조). 또한 양육효능감의 5개 하위영역인 전반적 양육, 건강 양육, 의사소통, 학습지도, 훈육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 능력이 사회적 유능성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표 5-1 참조).

## 3. 가족응집력, 양육효능감, 및 사회적 유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응집력, 양육효능감, 사회적 유능성이

표 5.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 준거변인    | 예측변인  | B   | $\beta$ | $R^2$ | $t$  | F        |
|---------|-------|-----|---------|-------|------|----------|
| 사회적 유능성 | 양육효능감 | .32 | .48     | .23   | 5.80 | 33.63*** |

\*\*\*  $p < .001$

표 5-1.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 준거변인    | 예측변인   | B    | $\beta$ | $R^2$ | $t$  | F        |
|---------|--------|------|---------|-------|------|----------|
| 사회적 유능성 | 의사소통능력 | 1.24 | .47     | .22   | 5.70 | 32.37*** |

\*\*\*  $p < .001$

초등일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응집력, 양육효능감 및 사회적 유능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 변인 중에 양육효능감이 학교적응을 유의미하게  $p < .01$  수준에서 예측해 주었다(표 6 참조). 또한 양육효능감 하위영역인 전반적 양육, 건강 양육, 의사소통, 학습지도, 훈육 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훈육 능력만이 학교적응을 예언하는데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했다(표 6-1 참조).

아울러 양육효능감의 5개 하위영역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적응 하위영역인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중, 훈육능력이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수행적응을  $p < .001$  수준에서 그리고 또래적응을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었으나,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어떤 요인도 교사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지 못했다(표 7 참조).

표 6. 초등일학년 학교적응의 영향요인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 준거변인 | 예측변인  | B   | $\beta$ | $R^2$ | $t$  | F       |
|------|-------|-----|---------|-------|------|---------|
| 학교적응 | 양육효능감 | .38 | .29     | .08   | 3.25 | 10.53** |

\*\*  $p < .01$ ,

표 6-1. 초등일학년 학교적응의 영향요인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 준거변인 | 예측변인 | B    | $\beta$ | $R^2$ | $t$  | F        |
|------|------|------|---------|-------|------|----------|
| 학교적응 | 훈육능력 | 3.87 | .34     | .11   | 3.81 | 14.52*** |

\*\*\*  $p < .001$

표 7. 초등일학년 학교적응 각 하위영역의 영향요인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 준거변인   | 예측변인 | B    | $\beta$ | $R^2$ | $t$  | F        |
|--------|------|------|---------|-------|------|----------|
| 학교생활적응 | 훈육능력 | 1.47 | .34     | .11   | 3.82 | 14.61*** |
| 학업수행적응 | 훈육능력 | 1.37 | .33     | .11   | 3.70 | 13.71*** |
| 또래적응   | 훈육능력 | .75  | .26     | .07   | 2.91 | 8.44**   |

\*\*  $p < .01$ , \*\*\*  $p < .001$

#### 4. 학교적응에 미치는 예언 변인들 간 직·간접적 경로효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에 따라 변인 간 관련성에 대한 직·간접적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응집력, 양육효능감, 사회적 유능성 및 학교적응 간의 직·간접적 경로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각 경로의 직·간접적 효과에 대한 유의도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가족응집력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beta = .36, p < .001$ ).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beta = .48, p < .001$ )과 학교적응( $\beta = .27, p < .01$ )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각 경로의 간접적 효과를 살펴보면, 가족응집력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간접적 영향에 대한 표준화된 회귀 가중치를 계산해 보면  $0.355 \times 0.481 = 0.171$ 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또한 가족응집력이 아동의 학교적응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표준화된 회귀가중치를 계산해 보면  $0.36 \times 0.27 = 0.097$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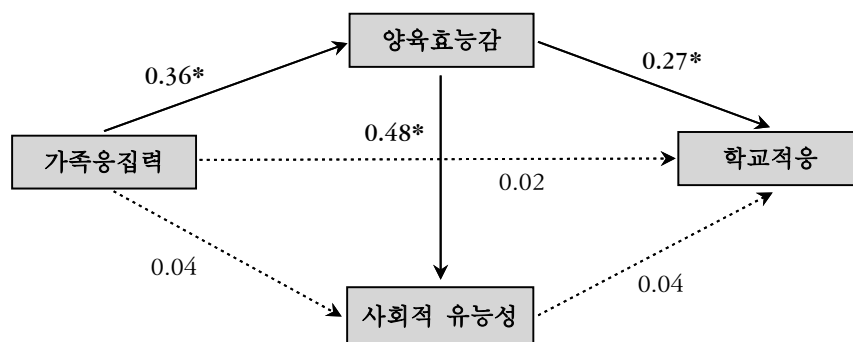


그림 2. 학교적응과 관련변인에 대한 직·간접적 경로

표 8.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 요인들 간 직·간접적 효과

| 경로      |   |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효과  | 유의도  |
|---------|---|--------|------|------|------|------|
| 가족응집력   | → | 양육효능감  | 3.55 | -    | .355 | .000 |
|         | → | 사회적유능성 | .038 | .171 | .209 | .660 |
|         | → | 학교적응   | .024 | .104 | .128 | .800 |
| 양육효능감   | → | 사회적유능성 | .481 | -    | .481 | .000 |
|         | → | 학교적응   | .272 | .018 | .290 | .011 |
| 사회적 유능성 | → | 학교적응   | .038 | -    | .038 | .714 |

\*\*  $p < .01$ , \*\*\*  $p < .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일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에 대한 탐색과 변인들 간·직간접적 경로를 살펴보았다. 즉, 가족응집력, 부모의 양육효능감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알아보았으며, 이들 변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경로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가족응집력과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가장 잘 예측해 주었다. 즉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 양육효능감이 22.6%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들은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육행동을 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Coleman과 Karraker(1997)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흔히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주로 주 양육

자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되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add & Golter, 1988). 이런 결과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가족응집력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 또는 가족이 서로 결속력 되는 정도(Farrell & Barnes, 1993; Olson, 2000)로 설명되어지는데, 아동의 행동문제 등과 같은 적응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ucia & Breslau, 2006; Kliever & Kung, 1998; Matheme & Thomas, 2001).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응집력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긍정적·대안적 사고 능력이 높게 나타나므로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적었으며(안성저, 2003), Alison, Shirley와 Mavis(1996)의 연구에서도 가족 결속력이 약화되면 성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 반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며 나아가 청년기 비행

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가족응집력은 아동중기나 청소년기의 사회적 유능성 및 심리·사회적 적응과 유의미하게 관련을 보였으나, 본 연구 초등일학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는 어떤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연구 결과는 발달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다. 아마도 이제 막 유년기를 벗어나 아동기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초등일학년 아동들은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적 유대 및 결속력 보다는 어머니의 직접적인 양육 행동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초등일학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영향력 있는 예측변인으로, 특히 어머니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사회적 유능성을 잘 예측해 주었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들은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며,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아이에게 자율권을 주며,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고 아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어머니 자신이 자녀와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견고히 할수록 자녀들에게 보다 긍정적 배려와 보살핌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효능감을 어머니에게 함양시키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들 뒷받침하는 지지 자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가족응집력, 양육효능감, 사회적 유능성이 학교적응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가를 살펴본 결과, 초등일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측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논의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들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Coleman & Karraker, 1997)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들은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양육행동을 함으로써 아동의 학교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육효능감은 학교적응에 대한 8.4% 정도의 설명력만을 보였다. 이는 학교적응이라는 사회적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령 초기 학교적응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표 6-1과 표 7에서 보면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훈육능력이 학교적응 및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인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그리고 또래적응을 예측해 주었다. 훈육능력에 대한 효능감을 가진 어머니들은 아이가 나쁜 친구와 사귀지 않고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위험한 곳이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지 않도록 지도하고, 밖에서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훈육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들은 학업수행이나 학업능력보다는 자녀가 친구와 바르게 놀 수 있도록 가르치며, 학교생활의 규칙을 지켜 잘 적응하도록 하고 사회적 상황에 따라 예의바르게 행동할 것을 가르치는 것에 특히 심려를 기우리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어머니의 훈육효능감으로 부터 아동

의 학교적응에 필요한 심리·사회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양육적 보살핌이 유발되는 것 같다. 특히 자녀 훈육에 대한 강조는 자녀의 학업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어머니들이 학령 초기에 학업 능력을 강조하기보다는 가정 및 학교생활에 대한 훈육을 적절히 잘 지도하는 것이 전반적인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양육내용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한편 가족응집력은 학교적응의 하위영역 중, 또래적응과 매우 미흡하게나마 상관을 보였을 뿐( $r=.19, p<.05$ ), 그 외에 다른 하위영역과는 어떤 관련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박수정(1998), 서명성(1998) 및 고경은(2002)의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족응집력은 아동의 행동 문제등과 같은 적응 문제를 예측했으며(Lucia & Breslau, 2006; Matheme & Thomas, 2001), 가족 간 응집력이 낮고 관여가 적을수록 아동의 불안, 과잉행동, 회피행동과 같은 부 적응적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Gorman-Smith, Tolan, Zelli, & Huesman, 1996). 이런 연구 결과들은 가족응집력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과 관련될 수 있음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력이 학교적응과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연구대상의 연령 차이 때문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연구 결과들은 아동 중기나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가족응집력과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이제 가정을 벗어나 학교라는 사회적 제도에서 적응하기 시작하는 초등일학년 아동들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변인보다도 어머니의 양육 상황 및

조건에 더 많이 의존될 수 있으므로, 양육효능감이 유의미하게 학교적응과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 간 관련성에 대한 경험적 지지를 제공한 선행연구결과(Dalton, Elias, & Wandersman., 2007; Zins, Weissberg, Wang, & Walberg, 2004)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성이 학교적응과 아무런 관련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성 발달은 학교생활을 통해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이제 입학한지 몇 개월밖에 안된 초등일학년 아동들의 사회적 유능성은 아동의 학교적응과는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로 각 변인 간 관련성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살펴 본 결과, 가족응집력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보였으며, 양육효능감은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즉 가족응집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증가되며, 양육효능감이 증가될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높아지고, 학교적응도 더 잘하게 된다.

각 변인 간 간접적 영향 경로를 보면, 가족응집력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즉 가족응집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증가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응집력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다시 설명해 보면, 가족응

집력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줌으로써 아동의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경로분석을 통해 변인 간의 직·간접적 인과 관계를 좀 더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 가족응집력은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과 사회적 유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양육효능감은 학교적응과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등일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기를 벗어나 아동기로 들어서면서 접하는 학교라는 사회제도에서의 적응은 이후 전개되는 사회적 삶의 적응에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Brody, Murry, Kim, & Brown, 2002; Ladd & Troop-Gordon, 2003), 학령 초기 학교적응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일학년 학교적응을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양육효능감은 학교적응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 8.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이후 연구되어야 할 문제들을 제안하면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3 영역에서의 측정치를 가지고 학교적응에 대한 예언 변인을 탐색하였으나, 가장 유의미했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대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학교적응과 관련될 수 있는 변인이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후 연구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학교적응에 대한 예언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초기 학교적응에 대한 종단적 탐색도 필요하다. 가령, 생의 초기 엄마와의 애착은 이후 사회성 발달의 토대가 되므로(Elicker, Englund, & Sroufe, 1992), 유아기 애착 특성과 학령 초기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해 22%의 설명력을 보였다. 특히 의사소통에 대한 효능감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훈육능력에 대한 효능감은 아동의 학교적응 및 그 하위영역과 관련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머니의 효능감을 고취시키는 부모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연구를 통해 부모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적응과 관련될 수 있는 광범위한 변인 탐색 및 유아기와 아동 초기의 연계성을 알아보는 종단 연구를 통해 초기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을 체계적으로 정립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런 변인 탐색에 근거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대한 실증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등을 통해 보다 건전한 학교적응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기초 지식들은 건전한 인간발달에 기여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경은 (2002).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근중 (2006).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정, 박금주 (2010). 초등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단기·중단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발달, 23(2), 19-37.
- 김승봉 (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동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1996). 서울지역 중학교 학생의 학교적응과 가정환경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수 (2002). 부모의 맞벌이 여부가 초등학생 자녀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미숙 (2003).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운석 (1996). 초등학교 도시전입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혜 (1995). 초등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의 관계: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정 (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아동의 지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명성 (199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진희 (2005).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성저 (2003). 아동이 지각한 가족응집력 및 적응성과 대인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영림 (1992). 가정의 심리적 환경변인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선이 (1999). 아동의 우정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경 (2004). 학교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성애, 정대현 (2006). 초등일학년용 학교적응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 차유림 (2001).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희 (2000).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괴롭힘이 학교적응과 우정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형성, 정옥분 (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6.
- Alison, D., Shirley, M., & Mavis, H. (1996). Family environment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nd antisocial behavior: A multivariate genetic analysis. *Developmental*

- Psychology*, 32(4), 590-603.
- Bagwell, G.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37, 122-147.
- Brody, G. H., Murry, V. M., Kim, S., & Brown, A. C. (2002). Longitudinal pathways to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african American children living in rural single-parent households. *Child Development*, 73(5), 1505-1516.
- Caprara, G. V., Barbaranelli, C., Pastorelli, C., Bandura, A., & Zimbardo, P. (2000). Psychosocial foundations of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Psychological Science*, 11, 302-306.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Dalton, J. H., Elias, M. J., & Wandersman, A. (2007). *Community psychology: Linking individuals and communities* (2nd ed.). Belmont, CA: Wadsworth.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Parke & G.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 Modes of linkage* (pp.77-10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Elliot, D. S. (1972). *Delinquency and the School*. Washington D. C.: Youth Development and Delinquency Prevention Administration.
- Farrell, M. P., & Barnes, G. M. (1993). Family System and Social Support: A Test of the Effect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1), 119-132.
- Gorman-Smith, D., Tolan, P. H., Zelli, A., & Huesman, L. R. (1996). The relation of family functioning to violence among inner-city minority yout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115-129.
- Haggerty, R. J., Sherrod, L. R., Garmezy, N., & Rutter, M. (1994).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rocesses, mechanisms, and interven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tz, L. G., & McClellan, D. (1992). The teacher's assessing the Soci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ERIC ED 346 988*.
- Kliewer, W., Kung, E. (1998). Family moder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hassles and behavior problems in inner-city youth.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278-292.
- Kotchick, B. A., Forehand, R., Brody, G., Armistead, L., Somon, P., & Clark, L. (1997). The impact of maternal HIV infection on

- parenting in inner-city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4), 447-461.
- Ladd, G. W., & Troop-Gordon, W. (2003). The role of chronic peer difficulti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Child Development*, 74(5), 1344-1367.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7). Classroom peer acceptance, friendship, and victimization: Distinct relational systems that contribute uniquely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8, 1181-1197.
- Ladd, G., & Golter, B. S. (1988). Parent's management of preschooler's peer relation: Is it related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09-117.
- Levy-Shiff, R., Dimitrovsky, L., Shulman, S., & Har-Evan, D. (1998). Cognitive appraisals,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417-1427.
- Losoya, S., Eisenberg, N., & Fabes, R. (1998). Developmental issues in the study of cop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2, 287-313.
- Lucia, V. C., & Breslau, N. (2006). Family cohesion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Psychiatry Research*, 141, 141-149.
- Matheme, M. M., & Thomas, A. (2001). Family environment as a predictor of adolescent delinquency. *Adolescence*, 36, 655-664.
- Olson, D. H. (2000).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Journal of Family Therapy*, 22(11), 147-164.
- Olson, D. H. , Portner, J., & Lavee, Y. (1985). *FACES III*.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s.
- Pease, D., Clark, S., & Crase, S. J. (1979). *Iowa Social Competency Scale: Preschool Form*. North Central 124 Regional Research Project, Iowa State University Home Economics Experiment Station Project 2019. Ames, IA: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 Raver, C. C., Zigler, E. F. (1997)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363-385
- Stipeck, D., Feiler, R., Byler, P., Ryan, R., Milburn, S., & Salmon, J. (1998). Good beginnings: What difference does the program make in preparing young children for schoo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9, 41-66.
- Teti, O.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Zins, J.E., Weissberg, R. P., Wang, M. C., & Walberg, H. J. (2004). *Building academic success*

*o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What does the  
research sa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차 원고접수 : 2010. 09. 29.

수정원고접수 : 2010. 11. 18.

최종게재결정 : 2010. 12. 03.

## An Investigation into the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in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I)

Kim, Suchung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wak, Keumjoo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early school adjustment and to examine the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s between them.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118 pairs of mothers and school teachers of 7-year old children. Family cohesion, parental efficac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ere measured through mothers' reports and school adjustment was measured via reports from the school teachers of each child. Correlation, stepwise regression, and path analyses were all conducted, based on the data from both the mothers' and school teachers' reports. According to our results, mothers' parental efficacy was a significant predictor for levels of both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school adjustment. Moreover, a subcategory of parental efficacy, that is, their communication efficacy,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dditionally, discipline efficacy significantly predicted levels of school adjustment, including its subcategories, which were defined as school life adjustment, academic performance adjustment, and peer adjustment.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indicated a direct effect of family cohesion on parental efficacy and also indicated that parental efficacy had a direct impact on school adjustment. Additionally, the indirect effects of family cohesion on school adjustment and social competence were mediated by parental efficacy. The results from the current study demonstrated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al efficacy and early school adjustment. Furthermore, mothers' parental efficacy was found to play a mediating role by enabling family cohesion to have an in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Key words* : early school adjustment, parental efficacy, social competence, family cohesion